

# “전파 빠르고, 재감염 우려”...오미크론

## BA.2 이어 BA.5도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전 세계적 유행, 하위 변이 계속 이어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하위종인 BA.5의 검출률이 급증한 가운데 전 세계적 대규모 확산이 세부 계통과 하위 변이를 불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BA.5의 검출률은 24.1%로 나타났다. 지난해 7.5%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당국은 BA.5가 조만간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수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BA.5 검출률이 지난 주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유행을 주도했던 델타형이나 알파형 등 다른 변이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는 하위변이, 세부계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오미크론 유행 이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대체된 바 있다. 여기에 BA.2.12.1, BA.2.3 BA.4, BA.5 등의 변이도 검출된 상태다. 이같이 변이의 변이가 이어지는 원인으로서는 대규모 확산이 꼽힌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하위 변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누적 확진자 약 1800만명 중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이후인 올해에만 약 1700만명이 감염됐다. 바이러스가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진화를 하고, 그 결과 변이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또 다시 변이를 일으키기 용이한 구조라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가 스파이크 단백질(인체와 결합하는 부위)에 15~20개 변이가 있는데 반해 오미크론은 무려 50군데”라며 “변이 부위가 많다보니 그 안에서도 새로운 조합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위 변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특성 변화만으로 전파력과 면역 회피 등 특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 보건청에 의하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는 기존

BA.2에 비해 전파력이 35.1% 빠르고 방어력을 의미하는 중화능이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는 어떻게 보면 형제나 자매와 같아서 어느 정도 교차 방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성격이 달라졌다”며 “BA.5가 감염을 주도하면 전 세계적으로 재감염 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BA.5가 기존 변이에 비해 중증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4차 접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임 단장은 “최근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4차 접종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4차 접종에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접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원도해경, 유관기관 합동 해수욕장 민간안전관리요원 교육

원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 전 민간안전관리요원과 해남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원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대책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위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다중이용시설 피난통로 특별점검

광주 동부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내달 31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커피바리스타 2급·디저트카페창업과정’ 개강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중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5일 NEW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커피바리스타 2급 및 디저트카페창업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정승호기자



광주 동구청,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동네방넷’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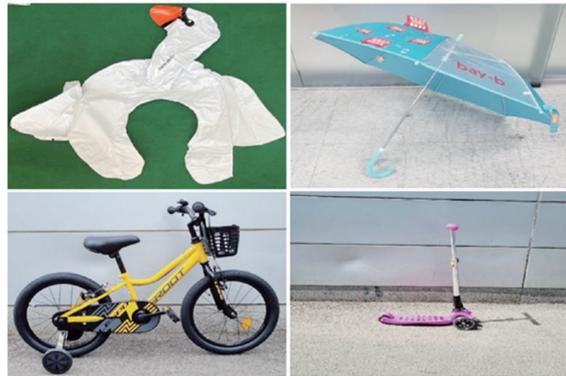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마을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동네방넷’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여름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 위반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등 제품정보 공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 기구와 어린이용 우산, 자전거, 키보드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56개 제품(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6개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선 제품안전기본법 11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10조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튜브 제품(1개)은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터짐 등의 파손과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 어린이용 우산(4개), 어린이용 선

글라스·케이스(1개), 어린이용 자전거(2개)·키보드(1개)·스포츠 보호장구(1개), 완구(8개) 등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의 경우 신장·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10개)과 유아용 신발(1개), 조일갑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4개)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 밖에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2개)와 보트(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4개) 등 12개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이 이



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성수기 수

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번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운전자에게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설명하는 경찰’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전북경찰관들이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4일 새벽 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범’ 체포

1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뤄진 서귀포 성산항 어선 화재와 관련해 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50대)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께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CC) TV에서 A씨가 선박 갑판 위를 돌아다니는 등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번호를 추적해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항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 점검도중 재가동 설비에 깔린 30대 노동자 사망

광주의 산업단지에서 있는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안전 사고로 숨졌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의 부품 제조업체에서 A(39)씨가

기계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점검을 하기 위해 설비 가동을 멈추고 생산 라인에 올라섰으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동료 재가동한 것

로 전해졌다. 설비는 A씨를 포함한 2인 1조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기자